



‘성대형(成大型)’ 학부제의 운영 성과

김 준 영 |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장

I. 추진 배경 및 학부제의 이해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이른바 ‘학부제’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지도 어언 10년이 가까워 왔지만 아직까지 학부제에 대한 consensus 형성이 부족한 형편이다. 혹자는 대학개혁론의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받드는가 하면, 혹자는 대학망국론의 주범으로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개의 제도가 그러하듯이 ‘학부제’ 역시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처한 여건과 특성화 방향 그리고 대학운영방식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유기체인 것이다. 또한 학부제는 고유한 하나의 기준 모델이 제시되어 있는 고정적인 제도가 아니다. 대학 스스로 대학발전과 효과적인 교육방향에 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탄력적인 교육시스템이다.

성균관대는 지난 '96년 전국 대학 최초로 학부제를 전면적용하면서 교육개혁을 선도해 왔

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지난 2001년에는 서울대 총장일행의 성대 학부제 벤치마킹과 성대에서 개최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의 ‘대학교육정책 워크숍’을 계기로 ‘성대방식의 학부제’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기도 하였다.¹⁾

성대에서 학부제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변화’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대학간 경쟁의 격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대두 등 사회의 변화는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마침 1995년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학의 변화를 추동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건학 6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의 비전의 재정립, 삼성그룹의 재단 영입 움직임 등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팽배해 있던 대학발전과 교육구조 개혁의 요구가 변화의 동인이 되었다.

오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학발전의 엔진이자 개혁의 기제로 학부제를 선택하였다. 한국 대학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

1) 중앙일보(2001. 9. 6) 성대방식 학부제 ‘빅 히트’, 조선일보(2001. 8. 29) 성균관대 찾아가는 서울대 총장, 조선일보(2001. 9. 6) ‘성대 학부제’에 시선 집중 등

“

성대에서는 학부제의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세분화된 유사학과를 통·폐합하여 학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통하여 교육 수월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적되어 온 백화점식 학과의 나열, 학문영역의 세분화, 방만하고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학과 운영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학문의 발전은 커녕 최소한의 현상유지도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한 전공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패러다임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결국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당연한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성대에서는 학부제의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세분화된 유사학과를 통·폐합하여 학문 경쟁력(competence)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통하여 교육 수월성(excellence)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II. 추진 경과

학부제의 유형과 추진 방식은 대학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 성대에서 추진한 학부제의 골자는 유사학과 통·폐합으로 대변되는 교육구조의 혁신과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모집단위의 광역화이지만 또한 학부제가 각종 학사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유기체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개정, 졸업인증제 도입, 복수전공 활성화 등 각종 학사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추진하였다.

교육구조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96년 12대학 76학과체제를 14학부 12학과 체제로 개편하면서 학부제 체제를 도입하고, 2001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학부제를 보완하면서 4대계열, 4소계열의 광역화된 모집단위를 운영하게 되었다. 학부제 추진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부제 전면 시행 : '96. 3.

- '95년 당시의 12대학 76학과를 14학부 12개 학과로 개편

- 모집단위를 76단위에서 26단위로 광역화

- 법과대학, 사범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를 전공으로 명칭 변경

2) 학부제 보완(제2차) : '97. 3.

- 14학부 12학과를 15학부 11학과로 개편하고, 의예과를 신설함.

- 팀제 행정시스템 전면 도입 : '97. 11.

3) 학부제 보완(제3차) : '98. 3.

- 교육단위를 15학부 11학과에서 16학부 8학과로 조정

- 모집단위를 26단위에서 24단위로 광역화

-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인문학부 사학전공에 통합

- 학부장(Dean) 중심의 분권자율행정시스템 구축 : '98. 8.

〈표 1〉 유사학과 통합의 주요 사례

유사학과	통합 내역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 정보공학과 + 제어계측공학과	전기·전자 및 컴퓨터공학부로 통합
기계공학과 + 기계설계학과	기계공학부로 통합
약학과 + 제약학과	약학부로 통합
경제학과 + 농경제학과 + 무역학과	경제학부로 통합
경영학과 + 회계학과 + 무역학과	경영학부로 통합
유교철학과 + 중국철학과 + 한국철학과	유학·동양학부로 통합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 인문학부 사학전공	인문학부 사학전공으로 통합

- ‘학부(Faculty)’의 개념을 학부+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연구소의 통합교육연구단위로 규정

4) 학부제 편제 완성 : '99. 3.

- 교육구조를 16학부 8학과에서 18학부 6학과로 개편

- 모집정원(4,175명)의 90%를 학부 이상의 단위로 선발하는 1단계 모집단위 광역화를 완성하고, 학부제 편제를 완성함.

5) 모집단위 광대역화 완성 : 2001.3.

- 모집단위를 18학부 6학과에서 4대계열, 4소계열로 조정함으로써 모집단위가 24개 단위에서 8개 단위로 대폭 광대역화 되었음.

- 계열학부 신설 및 지도교수제 시행

Ⅲ. 학부제 운영 현황

1. 유사학과 통폐합

성대에서 학부제를 추진하면서 학문간의 벽을 낮추고,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조치로 추진한 것이 유사학과 통합이다. 유사학과 통합을 위해서 ① 모과

에서 분리된 학과들은 모과 중심의 학부로 통합하고, ② 학문의 이론적 토대가 중첩되는 유사학과들은 하나의 학부로 통합하며, ③ 인접한 전공들은 하나의 학부로 통합하기로 원칙을 설정했다. '95년 학부제 도입 이전에 12대학 76학과로 구성되어 있던 학문단위를 4차례에 걸친 유사학과 통폐합 작업을 통하여 18학부 3대학에 54개 전공(학과)으로 재편하였다. 유사학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학부로 구성한 구체적인 사례는 〈표 1〉과 같다.

2. 모집단위 광역화와 전공 선택기회의 확대

모집단위를 광역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학생 선발단위 확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교육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점수'에 의존한 학과 선택은 결국 대학의 교육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96년 학부제 도입 당시에는 학과로 구성된 76개의 모집단위를 운영하였으나, 2002년의 경우는 4개의 대계열과 4개의 소계열로 8개의 모집단위를 운영하고 있다. 4개의 대계열은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

“

광역화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1년간의 전공탐색기간을 통하여 자기의 잠재된 창의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적성을 재확인한 연후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전공 선택에 있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정확히 알고 장차 전공할 학문에 대한 기초적 소양을 갖춘 후에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

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이고, 4개의 소계열은 학문영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학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및 의·약학계열로 운영하고 있다.

광역화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1년간의 전공탐색기간을 통하여 자기의 잠재된 창의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적성을 재확인한 연후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전공 선택에 있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정확히 알고 장차 전공할 학문에 대한 기초적 소양을 갖춘 후에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물론 모든 학생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질과 적성보다는 사회적 여건과 취업 전망을 우선시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정전공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경쟁시스템이 운영하고 있다. 전공 선택의 상한선을 정원의 120%로 한정하여 전공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신에 전공 선택의 하한선을 폐지하여 전공별 자구노력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학부제 교육과정 구축

학부제는 학사구조적인 하드웨어의 변화뿐

만 아니라 학사운영적인 소프트웨어의 개혁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 성대는 '96년 학부제 도입과 동시에 교육과정을 학부제 시스템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2000년도에 학부제 고도화 조치의 일환으로 다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교육과정을 단순히 교과목의 나열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 운영의 각종 학사제도와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는 유기적 구조임에 착안하여 학부제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총체적으로 접근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수학점의 조정

- 졸업소요 이수학점을 학부별 특성에 따라 130학점까지 인하
-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도입하여 졸업소요 이수학점의 1/4(33~35학점) 수준으로 하향 조정

2) 교과목의 신진대사 촉진

- 유사과목 통폐합 : 2,850과목을 1,751과목으로 대폭 축소
- 신규 과목 대폭 개발 : 930과목 개발
- 필수과목제도 폐지: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을 전면 폐지하여 학생의 전공선택권과 교과목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함.

3) 교양교육과정 개편

- 교양영역에 '기초과목'을 도입하고 기초 학문 분야 교양과목을 증설하여 기초교육 강화 및 기초학문분야 보호 도모
- 기술적, 방법론적 학습능력 개발 : 지식의 전달보다는 지식의 창출능력(학습능력과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둔 교과목의 운영 권장
- 교양과정의 Core Curriculum화('00): 10개 영역 균형이수제 도입
 - ① 공통기초영역(4과목)
 - ② 기초인문과학영역(6과목)
 - ③ 기초사회과학영역(6과목)
 - ④ 기초자연과학영역(17과목)
 - ⑤ 기초공학영역(9과목)
 - ⑥ 전공탐색영역(42과목)
 - ⑦ 역사와 철학영역(28과목)
 - ⑧ 문학과 어학영역(44과목)
 - ⑨ 사회이해영역(57과목)
 - ⑩ 일반교양영역(51과목)
- 4) 교양교육과정 개편
 - 전공필수과목 폐지
 - 전공과목을 전공기반과목, 전공심화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최소이수학점을 지정하는 '전공과목 균형이수제' 도입
 - 학부공통전공과목, 학부간 상호인정전공과목 확대: 다전공이수활성화
 - 최소전공이수학점제(33~35학점) 도입 및 졸업학점 다양화(130~150)
 - 전공교육과정 편성권을 학부단위로 위임
- 5)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계('00)
 - Road Map 교육과정: 대학원 진학, 사회 진출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따른 각기 다른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이수

모형을 교과목 Package로 제공('학문지향형', '취업지향형', '복수전공형', '자격증취득형' 등)

- 단일전공 프로그램 강화: 학문분야 특성에 따라 단일전공의 심화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 :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따른 공학교육 프로그램)

4. 졸업인증제 시행 : 3품인증제 도입

학부제 및 모집단위의 광역화 등 대학교육 현실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학사관리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졸업하는 학생의 질(Quality)에 대한 사회적 인증제도를 지난 '96년에 도입하였다. 학생의 전공/진로 선택권 확대를 통한 '열린교육' 체제 도입과 더불어 사회와 기업에서 신뢰받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교육과 학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능력과 교양을 겸비한 지성인' 육성을 위하여 사회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국제화, 정보화 및 인성에 대한 기본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여 '품'을 인증하고 있다. 국제품은 글로벌시대의 세계시민에 걸맞는 실용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이고, 정보품은 '디지털 혁명시대, 지식기반 사회'의 기본적인 자질로서의 컴퓨터 및 정보처리 능력의 인증이며, 인성품은 사회봉사, 예의범절 등 사회적 Leader의 필수덕목인 인성에 관한 '교양있는 지성인'으로의 품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3품인증을 받지 못해 졸업이 유보된 사례는 2000년 27명, 2001년 75명, 2002년 41명,

“

학부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철칙이 아니라 대학의 구조와 운영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정착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제다.
 즉 학부제라는 제도상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과 연구의
 생활 속에서 학부제가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03년 123명이다. 3품을 의무적으로 취득
 해야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인증 기준이 상
 향조정됨에 따라 3품 미이수 졸업불가자가 점
 증하고 있는 추세다.

IV. 성과

'96년 도입한 학부제가 2000년도에 편제를
 완성하면서 4년간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지만
 아직까지 학부제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또한 학부제가 대학운영방식 등 각
 종 학사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유기적
 인 구조이므로 학부제만의 성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요소가 많다. 그러나 유사학과 통폐
 합, 모집단위 광역화 등 학부제적 요소를 통해
 서 나타난 성과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긍정적 측면 : 학부제의 심화·발전 요소

첫째, 모집단위를 광역화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이 선발되었고 학생의 전공선택권이 확대
 되었다. 학과별로 학생을 모집할 때에는 인기
 학과와 비인기학과에 따라 입학생들의 성적편
 차가 심했지만, 여러 전공을 광역화하여 모집
 함으로써 전공에 관계없이 입학생의 성적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능력이
 뛰어난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수
 준 높은 대학교육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의
 미한다. 또한 당초 학부제의 취지가 학생의 소
 질과 적성에 의한 전공선택권의 확대를 지향
 하고 있는 것처럼 광역화된 모집단위로 학생
 을 선발함으로써 학생은 1년여의 전공탐색기
 간을 거쳐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
 니지만 복수전공의 활성화, 연계전공제도의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의 전공선택 기회는 획
 기적으로 신장되었다.

둘째, 대학 1학년생의 학업성취도가 상승하
 였으며 면학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광
 역화된 모집단위로 선발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배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
 게 되었고 이는 1학년 전체의 학업성적 향상
 으로 이어졌다. 성대의 경우 2000학년도 전
 체 1학년생의 평점평균이 2.80이었으나
 2002학년도에는 2.92를 기록함으로써 평점
 평균이 0.12 상승하였다. 그리고 학사경고자
 역시 대폭 감소하였다. 2000학년도 전체 1학
 년생 중 학사경고자는 710명으로 16.3%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2학년도에는 학사경고
 자가 551명으로 13.3%로 감소되었다. 1학년
 생의 평점평균 상승과 학사경고자의 감소는

광역 단위로 모집하는 대계열 학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과 교과목 선택권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폐쇄적인 학과운영체제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전공에서는 전공별, 교과목별 수강학생 유치를 위해 전공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전공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하고, 수업방법을 다양화·선진화하고, 교수방법의 개선을 추구하게 되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강의 과목이 대폭 증가하고, 첨단강의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어 교육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개발센터를 설립하여 교수·학습법의 선진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거요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넷째, 복수전공이 활성화되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회에서는 다기능·다전공의 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최소전공이수학점을 졸업학점의 1/3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복수전공 학위수여자가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학과제로 졸업한 '98년도에는 복수전공 학위수여자가 32명에 불과하였으나 학부제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2003학년도에는 847명이 복수학위를 가지고 졸업하였다.

다섯째, 유사학과 통합으로 학제적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교수의 연구력이 급격히 신장되었다. 학제간 협동연구 활성화의 성과는 BK21 인문사회분야에서 성대가 전국 최다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유교문화권교육연구단'의 경

우 8개 학문분야(전공)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의 주제로 협동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21세기직업세계연구인력양성교육연구단'의 경우 3개 학문분야(전공) 교수가 참여하여 공동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인 SCI 논문게재 실적의 비약적 상승을 가져왔다.

'96년 92편에 불과하던 SCI 논문이 2000년 584편, 2001년에는 905편, 2002년에는 928편, 2003년에는 1,242편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2. 부정적 측면 : 학부제의 보완·개선 및 극복과제

첫째, 전공 선택시 특정전공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전공 선택에 있어 인기전공 편중현상은 학부제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니다.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한다고 하여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에 쏠림현상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합리성보다는 사회적 인식과 취업 전망 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현실성을 앞세우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인기 전공'이라고 불리우는 기초학문·순수학문의 위기를 '시장논리'에 맡겨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기초학문 보호 육성과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공예약제'를 도입하고, 교양·기초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초학문보호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최소전공인정학점제로 전공 교육이 부실화되고 있는 문제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복수전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공이수

학점을 축소함으로써 전공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전공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전공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전공이수학점 상향 조정, 학습량의 배가, 교수학습법의 혁신 등을 통하여 전공교육의 질적 변화가 추구하고 있다.


셋째,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과제의 요소가 전공에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학부의 단위 구성이 학과 통합적 수준에서 시작되어 학부의 규모와 내용이 균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단과대학을 학부로, 학과를 전공으로 단순 개칭한 형식적 측면이 없지 않다. 학부제의 내실화를 위해서 학부단위의 축소조정과 전공통합이 요청된다. 사실 학부제는 학생의 소속단위와 교수의 소속단위를 분리하여 학문의 유연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공을 교수의 소속단위이자 학생의 소속단위로 간주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V. 향후 발전 방향

학부제는 학문분야간의 학문의 벽을 낮추고,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고도화하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다. 학부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철칙이 아니라 대학의 구조와 운영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정착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제다. 교육구조 개편과 동시에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학생들에게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공 만족도를 제고하며,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보호·육성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지원체제도 학부제의 취지에 맞추어 학부장 중심의 개

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학부제라는 제도상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과 연구의 생활 속에서 학부제가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제는 대학의 여건과 사회적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문발전과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학문분야간의 벽이 더욱 낮추어져야 하며, 무분별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유사학과를 통·폐합하여 학문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 수요자의 학문선택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응용학문분야에 대한 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한 학문분야를 같은 울타리에 담아 놓음으로 인하여 교육 내·외적으로 많은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응용학문분야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기초학문분야는 학부대학(University College)체제와 접목되는 것이 교육구조의 선진화의 요체이고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재정학회 회장, 재경부 세계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자문위원, 조선경제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거시경제학』, 『해방이후 물가 50년』, 『Cost of Capital, Q Model of Investment, and Capital Accumulation』 외에 다수가 있다.